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학생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지혜의 영을 회복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 및 예배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아마 연휴를 맞아 대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왔던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로만 알았던 이들이 새로운 지혜로 충만한 청년이 되어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은 연합감리교 학생주일입니다. 사랑과 격려로 우리 교회 가족에 허락해 주신 학생들과 청년들을 품는 기회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룩한 사랑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 에베소서 1:17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를 더 깊이 깨닫도록 그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단지 개인적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것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설교 자료

이 아닌, 서로 돕고 다른 이들이 꿈을 좇아가도록 격려하는 수단으로 여기도록 양육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하는 더 큰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며,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서로 돕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내미는 일, 경청이 필요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증거로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꼭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가르치고, 학업 중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걷는 일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을 지나는 그들의 “마음 눈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격은 갖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될 특별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원은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그들 주변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 배우는 학생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돕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더 큰 선을 위해 공헌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는 성공이 단지 우리 능력이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와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또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지식과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이들로써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그분의 사랑을 나눕니다.

